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2월 11일 (제93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설날

나는 명절에 어머니를 뵈러 간다. 셋째인 이 시대 목사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명절 때면 우리 7남매는 물론이고, 조카, 손주들까지 하면 무려 30여 명이나 되는 가족이 다 모인다. 대가족이다. 이렇게 다들 모이면 우리 어머니는 안 드셔도 배가 부르신 듯 흐뭇해하신다.

명절에 가족이 다 모이면 우리는 꼭 예배를 드린다. 나는 항상 신명기 28장을 읽고 설교한다. 매년 같은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족이 복을 받고 형통하며, 머리가 된다는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그럴까. 농사꾼이었던 우리 부모님 혈통에서 주의 종을 비롯한 제법 굵직굵직한 인물이 배출되고, 다들 분에 넘치게 잘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집안에 이뤄지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나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을 참 좋아한다. 나뿐이겠는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많이 상고할 것이다. 이 말씀의 전제조건은 단 하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런데 조건은 하나지만 축복은 너무 많다. 흔들려 놀려 넘칠 정도다. 나와 가족이 축복 받는 것은 기본이고, 내가 만지는 그릇도, 내가 기르는 짐승도, 내가 밟는 땅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다. 만사형통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여러분들도 이번 설날에 온 가족이 모이면 함께 찬양하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독하고 나셨으면 한다.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읽으면 깨달아질 것이다. 그 한 가지 조건만 실천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질 것이다.

설날 어른에게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준다. 이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큰 주머니가 활짝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명절을 쇠러 고향을 찾아가는 성도들, 무사히 다녀오시고, 즐겁고 행복한 설날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잔이었지만(막14:36)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다.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 로마를 떠나다 로마로 향하는 주님을 보고 '퀵바디스 도미네(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며 다시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행16:9) 아시아로 가려던 뜻을 접고 유럽을 복음화 했다. 목사님은 "종은 종일뿐, 종은 의지가 없다. 돈 준다면 가지 않는다."며 지구 반대편을 넘어 남미 선교에 매진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저녁예배에 임직하

시다. 오직 사명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직업과 사명은 다릅니다. 직업은 생활을 위해, 먹기 위해 일하는 것이나 사명은 직업 이상의 것입니다. 내가 항상 제자들이나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에 부도낼 바에야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

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하시니라'(눅14:25~35).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의 길,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각오해야 할 사항이며,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할 거 같으면 사전에 그만두라는 권고입니다. 짬뽕을 내지 못하는 소금, 곧 사명에 부도난 자들은 쓸데없이 버림받을 뿐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소금은 액체, 기체, 고체 모두 다 짬뽕을 냅니다. 갈려도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은 각자 다릅니다. 손은 손, 발은 발,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기가



목사 및 전도사 임명식(2018년 1월 31일 KBS 88체육관)

는 목사, 전도사,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사명에 부도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다.

"사명(使命)이란 부릴 사(使)에 목숨 명(命), 곧 부리는 자에게 목숨을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과 생각을 접고 주군의 뜻과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군의 뜻을 거슬러 자기 생각과 뜻대로 고집할 때, 사명에 부도가 납니다. 사업하다 부도가 나면 옥에 가지요. 신앙에 부도가 나면, 사명에 부도가 나면 영원한 출구가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도(不渡)란 아닐 부(不)에 건널 도(渡), 곧 건너서는 안 되는 다리입니다. 사업에 부도나지 않으려면 자금이 많아야 하듯, 신앙에, 사명에 부도나지 않으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순교도 각오해야 할

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전을 청할찌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

맡은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임직하는 자들이나 나의 제자들 모두가 맡은 사명에 충실하여 사명에 부도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의 현재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확실히 인식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근본을 망각하여 스스로 자고하다 넘어진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 목사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신앙에, 사명에 부도내지 않는다. 깊이 유념할 일이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0:14~33)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

2018년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아 범이 날개를 다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번 설날이 걸리지요? 제사 문제 말입니다.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아 복 받고 싶은데 제사가 문제입니다.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줄 알긴 알지요. 그런데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시댁인 지라 어쩔 수 없으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절 전 주일은 교회에 안 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명절 때면 꼭 '제사 지내지 말라'는 설교를 하기 때문이랍니다. 안 들으면 좀 가책이 될 뵈나 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고전10:20~21).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귀신에게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가 귀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고 죽었으면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다 귀신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도 "그럼니 아버지가 귀신이야?" 하며 노발대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제사 지낼 때보면 귀신 들어오게 문 열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기뻐하라 그날에 상이 크다

그런데 그 귀신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요, 할아버지요, 할머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종개들인 겁니다. 제사 밥을 올린 대상이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고전10:22).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웬만하면 다 포용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 귀신을 섬기는 것만은 선을 그으십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집안의 장손이고 장남이다 보니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지방이라는 것을 써서 제사상에 올려놓는데, 그 지방을 보면 '故 아무개 神位'라고 씁니다. '신위(神位)'는 '죽은 사람의 영이 의지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조상을 단순히 사람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에게 절하는 것을 단순한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편협한 종교라서 제사를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앓은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허메라 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으며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행14:15) 하며 제사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는 오직 제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제사 음식에 손을 댄 것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겁니다. 도

독
질 할
때 망
본 놀이나
담을 넘어 털어
오는 놀이나 장물아
비나 다 똑같다고요. 예레미야

7장 18~19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격노케 함이나 어찌 자기 얼굴에 수옥을 자취함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부침개를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데,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격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사에 손을 보태는 일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은 피했는데, 부모님 집에 갔더니, 큰 형님 집에 갔더니 음식을 내어오는데 이게 제사음식 같은 겁니다. 이럴 때는 또 어찌해야 하나요? 그 질문에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전10:24~28). 차려진 음식은 어떤 것이든지 양심의 가책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약한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음식이 제사 음식임을 가르쳐준다면 그것을 알게 한 자와 자신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말을 듣고도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이 제물임을 가르쳐준 사람이 그 일로 인해 상처받아 실족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책 임은 제물을 먹는 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

음
이
약한 그
리스도인이
그것을 보고 '우
상과 교류해도 괜찮
은 것이 아닌가', 또는 '그 음

식을 먹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 하는 등의 오해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전8:8~13). 그러나 아무도 음식 출처에 관해 듣지 않았다면 물어보지 말고 먹어도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사문제나 제

사 음식에 대해 껄끄러워하면 안 믿는 가족도 제사 지내지 않는 음식을 따로 준비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613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축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첫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나님의 경고메시지도 알려드립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5~6).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매번 명절 때마다 핍박 받고 고달프지 않으려면 가족들을 구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명절 때 모여 함께 예배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나의 가족에게 분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간신히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남을 끌고 가는 믿음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믿으면 천국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러는 것, 별로 효과 없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더욱 가족을 사랑하고, 악을 버리고 온전한 성품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잘 되고 머리가 뒬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너는 왜 그러냐?" 하는 소릴 들으면 안 됩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느브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지만, 그들은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쪽 같은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탄복하셨고, 주의 천사들을 급파하사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풀무불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하고 지혜롭게 처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사 하늘의 상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하나님의 손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는 로댕(Auguste Rodin)의 조각 ‘하나님의 손’(The Hand of God)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우 거칠고 투박한 대리석 위에 매끈하게 조각된 손이 있고, 그 손 안쪽에는 엇갈린 자세로 서로를 부둥켜안은 두 남녀의 아름다운 나체상이 매끄럽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창조를 시작했다고 한 것처럼, 투박한 돌덩이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듯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하나님의 손은 매끈하고 힘차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얼굴을 여인의 가슴에 파묻고, 여인은 가슴으로 남자를 껴안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없이 큰 행복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목표가 사랑이라는 것이 이 작품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각가 로댕은 평소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생명을 재현해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는데, 그의 이런 사명감을 유감없이 드러낸 작품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작품은 로댕의 마지막 작품으로 하나님의 더없는 사랑에 관한 로댕 자신의 인생관과 영원불변한 진리의 세계를 보여 주며, 인간에게 생명과 빛의 가능성, 곧 견고한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다. 그 손은 “그때에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2:7)는 창조의 지고한 손이며, “강한 손과 짧은 팔로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시136:12)라고 했던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고 있어서 하나님은 한탄해하십니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너무 짧아 구해낼 수가 없다는 말이나?”(사50:2).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사66:2)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생명과 꺼지기 쉬운 신앙의 불길에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욥12:10).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 세상을 보는 창 ::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음력 1월 1일은 설이다. 구정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양력 1월1일이 새해다. 그런데 새해 첫날의 명절은 음력 1월 1일이다. 정부에서는 구정을 없애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신라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문화를 정부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새해는 양력 1월 1일이고, 음력 1월 1일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로 지내고 있다. 설이면 설빔을 입는다. 아이들에게는 꼬까웃이라는 색동저고리,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를 새로 만들어 입혔고, 어른들은 두루마기, 도포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신발까지 새로 준비하였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래서 설이란다. 설에는 가족과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며 세배와 덕담, 민속놀이를 하며 친교를 나누는 최고로 기쁜 날이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양력 1월 1일은 새해다. 그러나 실질적인 새해는 그들의 음력 7월 1일이다. 그 날은 성경에서 나팔절이라고 한다. 나팔절도 새롭게 살자는 의미로 나팔을 분다. 나팔은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인데, 이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팔을 불어 새로운 해의 기쁨을 온 세상에 알렸다. 나팔절 또한 새롭게 되

자는 갱신의 의미와 더불어 예배, 친교, 구제의 의미를 담은 이스라엘 축제의 날이다(레23:23~25).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절과 더불어 30년만의 더 큰 민족의 축제를 주셨다. 그것은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더욱 큰 의미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해 첫 하나님의 선물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평화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이자 마중물이기 때문이다. 시대마다 유행되는 키워드가 있다. 21세기는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를 번역하면 ‘협동’, ‘제휴’, ‘공유’라는 의미이다. 20세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커뮤니케이션에서 한발 더 나아가 21세기는 콜라보레이션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명절과 축제를 통해서 가족과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더 나은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나가길 소원해본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앎과 믿음

일곱 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가 생각난다. 아이들 훈련시키느라고 선생님께서 저기 저 운동장 끝에 있는 나무를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시켰다. ‘요잇, 팜!’ 하니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어갔다. 그 때 나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자기가 있던 자리로 어떻게 다시 돌아올까.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고 돌을 찾아서 내 자리를 동그랗게 그려놓고 뛰어갔다. 당연히 꼴찌였다. 뛰어 돌아와 동그라미 쳐진 내 자리에 선 아이를 밀치고 그 자리에 섰다. 내 생각에는 무작정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라고 시키는 선생님도 이상했고, 무턱대고 뛰어가는 아이들도 이상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왜?’와 ‘어떻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수학 잘 하는 아이들은 ‘미분 적분, 이거 왜 해야 하지?’ 묻고 시작한다. 하지만 다른 보통의 아이들은 그저 공식만 외운

다. 그렇지만 ‘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예외 없이 공부를 잘한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을 분별해봐야 한다. 믿음과 앎에 대해서 깨닫고 적어 놓은 글이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옴과 앎 또한 들음과 체험으로부터 오니 내가 주를 앎으로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주의 뜻을 알며 행하는 자, 즉 의인이 되리라.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뜻하니 (what God wants),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 행하는 자, 곧 의인이라는 호칭을 받는다. 믿음과 앎은 하나이다. 깊이 알수록 믿음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의인이 된다.’

이광주 전도사
leekjlkj@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Favor의 축복

<favor>. 올해 시작을 알린 이 책은 나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날 감동시켰다. 이 책은 ‘팀 하스’라는 건축기업을 운영하는 하형록 회장이 쓴 책으로 책제목과 더불어 책의 표지에 등장한 카피 ‘나의 심장을 그에게 주십시오’는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펼쳐 겁이 나기도 했다.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이 책은 평범한 간증책이 아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왜 나는 교회 안에서만, 주님안의 이웃들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나’라는 부끄러운 고백과 함께 회개가 절로 나왔다. 하 회장은 6개월을 기다려 심장이식 수술을 받기로 한 그날, 오늘 그 심장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 후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옆 병실의 처음 보는 여자에게 자신의 심장을 양보한다. 그녀는 당장 심장이식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처지였다. 그녀보다는 자신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것이었지만, 그의 선택은 정말 놀라움이었다. 또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한 직원을 용서하고 그를 품는 행동, 몇몇 기업과 공동 작업을 마친 큰 건축공사에서 여러 가

지 문제점이 생기자 몇 천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고객과의 신뢰를 지킨 사건 등은 이윤창출만을 위해 달려가는 정글 같은 사회에서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이런 하 회장의 간증을 다 읽고 나니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한 명의 회사 동료가 생각났다. 그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책을 읽게 하신 것 같았다. 그는 나태하고 게으르며 언행은 공손하지 않고 늘 무례하다. 또, 일처리에 있어서 선배인 나에게까지 항상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로 하고 그날 저녁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웃을 사랑했던 저를 용서해주세요. 어둠속에 있는 자들까지 진정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시키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 동료를 사랑해보겠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favor의 축복이 때 순간 삶속에서 충만히 임하고 있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사역이 되는 삶

책을 싫어하는 자녀를 독서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지요.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아이는 부모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책을 펼치게 되고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간다고 합니다. 자신도 TV나 휴대폰만 보면서 우리 아이는 책을 너무 안 읽는다고 걱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지요. 가장 좋은 교육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최근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사시던 외할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늘 찌렁찌렁하고 당차셨던 외할머니는 한해, 한해 눈에 띄게 몸이 허약해지셔서 깜박깜박하는 것도 잦아지시고 가끔 대소변을 실수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외할머니를 귀여운 아이처럼 저희 엄마는 돌보고 계십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외할머니가 잠수시기 좋게 식사를 챙겨드린 후 몸을 깨끗이 씻겨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데, 이 모든 일을 귀하고 소중한 일처럼 기쁘게 하고 계시지요. 엄마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훗날 저희 엄마가 할머니가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껏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을 엄마의 행동을 통해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본이 되셨지요. 제자 베드로의 고

백처럼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벧전2:21~25).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밖에 나가 전도하는 일엔 소극적이어서 항상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총동원주일이 되면 친한 친구들을 한 번씩 교회에 데려오곤 했지만 그 친구들 중에 꾸준히 교회를 출석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억지로 교회를 나오게 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았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친구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제 삶에 첫 번째로 두고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하기 보단 기도하며 매사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아왔고 그 래서인지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게 전화를 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작년 하와이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

예배와 주일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그걸 옆에서 본 친구가 힘든 일이 생기자 제게 물었습니다. “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 줄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역경을 헤쳐 나가는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지, 얼마나 꾸준한지를 지켜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대하며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 하지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봅시다. 지금 나의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해봅시다. 오늘날이라도 사역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마5:15). **신은혜**
dopal0203@naver.com

여유가 있다면

고등학교 시절 나는 뉴질랜드란 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슬슬 대입 준비로 머릿속은 정신없고, 한참 사춘기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복잡하던 시기였던 터라 뉴질랜드로의 유학은 한줄기 빛과 같았다. 그곳의 환경과 분위기가 너무 느긋해서였을까, 그곳에서의 생활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차게 흘러내려가는 강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곤 그 강물을 바라보시며 ‘봐라, 이게 바로 세상 돌아가는 거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물론 그 후의 유학생활은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때 그 시절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조금은 거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버스를 다시 탄 날이었다. 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가깝스로 멈추고 탄 승객과 기사님이 서로 인성을 높이며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고 왜 저렇게들 마음의 여유가 없을까 생각하며, 모든 것이 빨라야 하고, 또 빠른 한국의 생활에 점차 다시 적응해갔다. 하루는 예배가 끝난 후 교회에서 나오며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성도님들을 보았다. 왜 저러실까 생각하다 문득 나의 모습도 되돌아보니 어느덧 그때의 마음 속 여유보다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다시금 세찬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에 욕하지 않는, 누구의 말도 편안하게 경청할 줄 아는, 내 말이 하고 싶어 안달하지 않는, 아등바등하지 않고 흘러가는 물에서 편안하게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평안, 점점 더 세차지는 세월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늘 내 마음에 임하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박찬영**
cross35@hanmail.net

☞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어, 음식, 사람, 환경을 싫어할 자 없다
Everybody would love to have warm people, with a soft voice and words, and good environment. 没有一人讨厌温柔的话语、食物、人和环境。

☞ 얼굴은 네 마음의 거울이다 어떤 일 있어도 화내지 말고 웃어라
Your face reflects your heart. Do not be angry, instead smile no matter what happens. 脸面是心灵的镜子。无论有什么样的事情,也不要生气,要微笑。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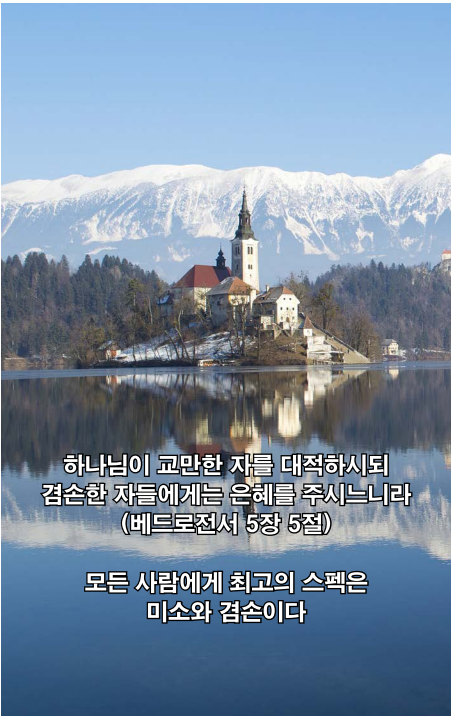


할렐루야! 새해가 밝은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후원해주신 총

회장 목사님과 교단에 계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사업장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교회 슬로건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 동안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의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마시고 먹을 수가 없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러야 입

성할 수 있었는데 조용히 인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따라가는 백성들도 많았습니다. 결론은 마시고 먹고 입고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원망 불평 없이 순종하고 따라갔던 백성들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살다보면 영적, 육적 전쟁을 치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시험, 환란, 고난, 고통 등 산적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고, 기도는 응답 받아놓고 하는 것이며, 위기는 기회고 찬스일 것입니다. 저는 몽골 선교 16년 동안 말 못할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음의 사선을 넘었고, 이단시비와 비자문제 등으로 고난이 있었고, 언어와 문화

가 달라 갈등도 있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본부의 도움으로 교회도 짓고 한참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바울의 고백,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15:58), 그리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사26:3),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평강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사시고, 범이 날개를 단 것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의 복을 다 받아서 예수님 자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본국과 본 교회와 총회장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몽골 예수중심교회 박선목 목사**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스펙은 미소와 겸손이다